

사회

광주·전남 122개 초등 '범죄 취약' ... 안전조치는 나몰라라

‘뒷집 치안’ 학교 보내기 겁난다

경찰 안전망 확충 소홀로 추가 범죄 피해 우려

■광주·전남 범죄 취약 학교

<광주> 서석초, 광주남초, 산수초, 광주서초, 효광초, 백일초, 화정남초, 금호초, 효덕초, 봉주초, 정산초, 유인초, 양산초, 동문초, 오치초, 삼정초, 운남초, 송정초, 송정중앙초, 송정초, 송우초, 산월초, 어등초, 비아초, 효동초, 대성초, 극락초, 방림초, 대반초

<전남> 목포남초, 목포대성초, 목포서부초, 목포산정초, 목포유일초, 목포동초, 목포서산초, 여수미평초, 여수무선초, 여수소호초, 여수성신초, 여수중앙초, 여수동백초, 여수여천초, 여수진남초, 여수구룡초, 여수서초, 여수동초, 여수남초, 순천원조초, 순천전남초, 순천남초, 순천연향초, 순천성동초, 순천남초, 순천동명초, 순천북초, 나주초, 나주중앙초, 나주영산포초, 나주남평초, 광양광명초, 광양중진초, 광양중동초, 광양월성초, 광양서초, 광양백운초, 담양남초, 담양한재초, 담양고서초, 곡성성기초, 곡성일민초, 구례북초, 구례중앙초, 고흥중초, 고흥북중초, 고흥동중초, 고흥금산초, 보성남초, 보성북초, 보성중앙초, 보성문덕초, 화순초, 화순안남초, 화순제일초, 장흥초, 장흥화진초, 장흥안남초, 강진칠량초, 강진직전초, 강진유천초, 해남중초, 해남서초, 해남송지초, 해남화일초, 해남삼산초, 해남합산초, 해남북일초, 영암삼중중앙초, 영암신북초, 영암금정초, 무안문남초, 무안현경초, 무안일로초, 함평월이초, 함평순서초, 영광중앙초, 영광법성초, 영광초, 영광중초, 장성서초, 장성진원초, 장성북초, 원도노화중앙초, 원도약산초, 원도신지초, 원도초, 진도고성초, 진도오산초, 신안지도초, 신안말해초, 신안일지초, 신안말해중초

CC-TV의 위치가 모두 고정돼 있어 정작 범행이 이뤄진 분관 현관문을 찍지 못했다. 또 학교에 배치된 경비원(77)도 범죄대응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주된 요인이 됐다.

또 이 학교는 주변에 구도심의 저소득층 주택가가 밀집돼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안전강화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남 경찰 역시 관내 초등학교 93

나주 교통안전 전국 꼴찌

올 상반기 30만 미만 지자체 중 사망률 최고

나주시가 전국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중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토해양부의 '2010년 상반기 교통안전수준 평가'에 따르면 나주는 지난해 상반기에 사망자 수가 8,37명으로 인구 30만명 미만 50개 지자체 중 교통안전 지수가 최하위였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전남이 4.05명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위(안전 수준 14위)에 올랐으며, 광주시는 2.14명으로 7개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광주와 전남은 서울 0.89명, 대구 1.34명, 경기 동두천시 0.67명, 강원 태백시 0명 등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열악한 교통안전시설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주는 지난해 상반기에 11명 사망한 데 비해 올해는 16명이 사망해

지난해 대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률도 3위(45.5% 증가)를 기록했다.

군 단위에서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보성이 12.4명으로 86개 군에서 교통안전수준 83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었으며, 함평이 8.9명으로 73위, 장성이 7.29명으로 65위를 기록했다.

반면 화순은 1.48명, 고흥은 1.69명으로 8위와 10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안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 연장 및 교통량을 감안한 사망자 수'(전국 평균 4.1명) 조사에서는 호남선(11.1명)이 1위를 차지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교통여건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국도가 많은 지역이 과속이 많아 사고발생이 많고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광주·전남지역에서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나원침 (8107) 김종두



광주 모텔 객실서 40대 등 2명 자살

30일 오후 4시37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투숙객 소모(45)·전모(24)씨가 침대와 방바닥에 각각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종업원(35)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종업원은 경찰에서 "속박비 문제로 객실에 올라갔는데, (이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기도 출신인 이들은 지난 28일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에는 소주병과 약물이 든 병이 있었다.

또 숨지자 직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생을 마감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관계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간부들 통화내역 내라”

전완준 화순군수 사생활 침해 논란

전완준 화순군수가 일부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군수는 최근 측근을 통해 군청 실·과장들로부터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받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민석 화순군 비서실장은 "최근 간부들에게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현섭 비리’ 검찰도 수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웅천터널’ 등 회계장부 압수

오현섭 전 여수시장 수뢰사건 수사가 검찰까지 합세하고 나서 비리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여수시로부터 웅천생태터널 조성사업(92억원), 웅천지구 인공해수욕장 조성사업(84억원), 진모축구장 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회계장부 일체를 가져갔다.

웅천생태터널은 웅천지구에 뚫린 터널의 생태복원을 위해 녹지 조성을 통한 생태복원사업이며, 웅천지구 인공해수욕장은 웅천택지지구 앞 해변장부 일체를 가져갔다.

한편 '시의원 20명 수뢰의혹' 사건에 대한 여수경찰의 수사도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오전 시장의 측근 인사 명단을 일부 확인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경찰은 당초 주씨 수뢰 혐의의 의원 16명에 대해 이반주 중에

사법처리를 하려했으나 '20명 시의원 비리'가 새롭게 불거지자 일단 사법처리를 미루고, 보강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분식집 선풍기 과열 화재

지난 29일 오후 5시25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분식집에서 선풍기 장시간 사용에 따른 모터 과열로 불이나 내부면적 3.3㎡를 태우고 소방서출산 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선풍기를 사용할 땐 ▲반드시 타이머를 설정하고 ▲타이머와 팬 등이상 여부 점검 ▲승인받은 제품(KS 제품 등) 구입 등을 당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미성년자와 성관계 여수경찰, 8명 입건

여수경찰은 3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이모(35)씨 등 8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초께 여수시 한 모텔에서 김모(15)양에게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주고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김양이 다른 친구 1명과 함께 여수·순천·울산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가솔 여중생인 점을 알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정신건강 무료 상담 30일 광주지하철 금남로 4가역 정신건강정보센터에서 광주시 북구보건소와 북구청 정신건강센터, 오현일교육상담센터 직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알코올 및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몰카女’ 위에 ‘의심男’

화대를 주지 않고 도망가려는 성구매자를 협박하기 위해 최첨단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 성 관계 장면을 몰래 찍으려던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에 사는 박모(19)양은 지난 28일 새벽 5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김모(47)씨를 만났다. 인터넷 채팅을

통한 '조건 만남'이었다. 박양은 김씨에게 먼저 샤워를 하도록 한 뒤 객실 테이블 위에 길이 13cm·무게 30g의 볼펜형 카메라를 올려놓았다. 렌즈는 짐대를 향하고 있었다. 박양은 최근 만난 성 구매 남성 2명이 화대 13만원을 주지 않고 달아나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 4만5000원을 주고 초소형 볼펜

채팅남 나체 찍어 협박하려다 ‘덜미’

형 카메라를 구입했다. 박양은 녹화 버튼을 누른 뒤 김씨가 나오자 샤워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김씨가 한 수 위였다. 조건 만남 여성이 성 구매 남성의 지갑을 몰래 훔쳐 출행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김씨는 문을 열어둔 채 샤워를 했고, 박양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박양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김씨는 테이블에 놓인 물건이 초소형 볼펜형 카메라임을 확인한 뒤 박양을 경찰에 신고했다. 박양은 경찰에서 "화대를 주지 않으면 김씨를 협박하려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광주서부경찰은 30일 박양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성관계를 맺지 않은 김씨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riaram House' restaurant, featuring a table of food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The text includes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 까?' and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람 하우스'.